

다산포럼

차이를 만드는 인간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동북쪽에 있는 ‘스피커스 코너’에 가면 여기저기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세월이 꽤 흘렀지만, 그곳에서 열몇 명의 정중과 요란한 논쟁을 벌이던 한 젊은이에게 눈길이 간 적이 있다.

기꺼이 가보니, 그는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숭이로 진화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각종 그림, 통계, 도표에다 복잡한 수식까지 동원한 설명은 너무나 진지했지만, 그는 아마 진화개념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을 것이다.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였든, 인간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연유에서든, 아리저리 치어며 조물거리가 된 인간에게 은근히 연민의 정마저 느꼈던 기억이 난다.

일찍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우주의 중심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다윈에 의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생물학적 환상을 버려야 했거니와, 진화론의 충격은 당대의 세기말적 우울에 단단히 한몫했을 것이다.

그로기 상태의 인간에게 마지막 케이오 편지를 날린 이는 프로이트였다. 그가 보기에 ‘흥분이 들끓는 가마솥이자 혼돈’인 이드(id)에 끌려다니는 인간은 ‘절반 이상으로 동물이며, 그것도 진정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는 병든 동물’이다. 과학이 아니라도 근대 이후 문학, 예술, 종교에서 만나는 인간관 역시 압도적으로 비극적이었던 것이 내 관찰이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임을 자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과학에 빚진 바 크다. 특히 의학의 발전은 놀라워서 인간의 평균수명을 한 세기 만에 두 배로 늘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의 에볼라 공포가 보여주듯 치료가 늘수록 치명적인 새 질병들도 꾸준히 더해졌다.

에릭 시겔이 ‘러브스토리’ 이후 한참 만에 펴낸 ‘의사들’이란 소설 도입부에는 ‘광기에 근접한 천재들’인 하버드의대 신임생들 앞에 놓고 백발의 학장이 행한 단 세 마디의 연설이 나온다. 그는 “제군,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지만 의

학은 그들 가운데 26가지에 대해서만 치료법을 가지고 있네. 나머지는 모두... 어렵직작일세”라는 ‘환영사’만 던지고 곧장 방을 나간다.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문헌들은 인간의 생애를 “짧고 악하다(few and evil)”는 말로 요약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1백세 운운하며 길어진 노년을 외려 걱정하고 업살을 부리기도 하지만, 유대 역사서인 구약에서 아랍이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생을 “짧고 악한” 순례자의 삶이었다고 회상할 때 그의 나이는 130세였다.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장수했다는 므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으니 지금 인류는 한참 줄어든 기대수명을 아래로부터 다시 힘겹게 올리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어느 지점까지 이룰지, 복이 될지, 화의 또 다른 원천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그 남루하고 짧은 생애 동안에도 인간은 수많은 차이들을 만들며 살아간다. 영국의 지명학 경제사학자 토니는 인간은 자신보다 상위개념을 전제할 때 비로소 서로를 목적으로, 즉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말한다. 가령 무한히 위대한 신을 명상할 때에만, 인간의 차이는 한없이 사소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문제는 신의 위대성을 잊으면서 인간의 왜소함도 잊었고 그리하여 인간들 간의 차이, 구분을 만들고 확대하고 강조하며, 거기에 집착한다는 데 있다. 진화론에 기대 인종과 민족의 본래적 차이를 강변하던 인간은 이제 대상을 개인으로 옮겨져 희생자의 품성을 들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최근의 한 조사는 한국은 2020년 무렵이 되면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15%를 넘고, OECD 최고의 불평등국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정이 어려운 자산불평등까지 합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불평등을 교정해낸 정도가 나라마다 현저히 다른 데서 드러나듯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상당 부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미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정대환 보고서를 퍼냈던 스티글리츠는 민주주의의 위기가말로 불평등이 가져오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단언한다. 정치에서마저 ‘탈라1표’의 시장원리가 관철된다는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을 뻔히 보면서 수백 명의 생명을 수장시켰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무도회장의 마루가 무너져 내리는데, 허공에서 춤추는 시늉을 하며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청춘 특·특

넓은 세상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다



양 수 정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초당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에서 혼자 내려온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공부에 매진하며 1학년을 보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다른 간호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 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로부터 일본에 오이라 현립 간호과학대학과 베트남 재향센터로 현장방문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학교의 지원을 받아 3박 4일간의 여행을 하며 짧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학교에서 수업만 들으며 생활했던 저는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일본의 발전된 간호현장을 보며 더욱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 진정한 간호를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환자를 만나 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더 학업에 열중하였고, 3학년 2학기가 되어 저에게 서울아산병원의 인턴십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1월, 꿈에 그리던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십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기본자세를 배우며 다시 한 번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미생물학’과 ‘해부학’ 수업이었습니다.

오이타 간호과학대학에서는 직접 학생들이 균을 배양해보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면서 미생물학을 배웠습니다. 또한 해부학 수업은 학생들이 인체와 비교적 비슷한 구조를 가진 개구리를 직접 해부해 보며 각종 장기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껏 학교에서 수업만 들으며 생활했던 저는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일본의 발전된 간호현장을 보며 더욱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 진정한 간호를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환자를 만나 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더 학업에 열중하였고, 3학년 2학기가 되어 저에게 서울아산병원의 인턴십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1월, 꿈에 그리던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십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기본자세를 배우며 다시 한 번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과정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의 ‘살아있는 간호’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외과 병동의 경우 ROUND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자에게 투약을 하러 가더라도 수액이 적정 속도도 들어가지는,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음식여부 확인, 배액양상 관찰을 하며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임상연구와 실무적용을 통해 창의적인 간호를 수행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쁜 간호업무로 소홀히 할 수 있는 손씻기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수액라인이 꼬여있는 환자를 보여주며 간호사로서 광장히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각자의 철학과 사명감, 그리고 자부심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 악기 플루트를 배워 바쁜 업무 중에 짬을 내 병실에서 플루트 연주를 해드렸고, 그때부터 병동 분위기가 밝아지고 비평

조적이던 환자들이 협조적이게 변하게 되고 치유와 퇴원이 빨라졌다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저 주어진 업무만을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이고 즐거운 간호를 실천하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은 저에게 있어서 ‘신세계’였습니다.

Great Work Place 즉, ‘직원이 행복해야 업무의 수준이 향상 된다’라는 철학이 매우 와 닿았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행복은 물론이며 직원들의 행복까지 중요시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느껴졌던 1주일간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넓고 큰 시야를 가진 이곳에서 저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더욱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신입간호사 공개 채용에 합격해 곧 저만의 간호를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제는 늘 꿈꿔왔던 서울아산병원에서 철학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간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큰 미래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 고

질문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박 중 철
이학박사·광주문화국제연대 대표

드디어 2015년 9월 개관! 이제 11개월 남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05년 후반기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2010년 5월18일에 개관기로 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5년이 늘어져 드디어 개관한다고 한다. 공정을 이 95%를 훌쩍 넘어서자 시민은 문화 황금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아시아문화수도’라는 대명제로 시작된 전당의 출발은 대도시의 도심 한 복판을 뚫으며 ‘문화발전소’로 만든다는 세기적(世紀的) 사건이어서 국내외 문화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경제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가난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지역이 문화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만이 아시아문화전당 설립을 알고 있다지는 현실은 아시아권은 아직 멀었고, 국내 용으로도 아직 덜 익었다는 표정이다. 지금 150만 광주시민은 대규모의 문화단지 가 도심에 생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수많은 공연과 전시를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광주 주변에 영화제작소, 외국영화 번역소, 톨강 생산업체, 미술도구 생산업체, 피아노·바이올린 등 악기 생산업체 등을 유치해야 한다. 생산작품에는 ‘아시아문화수도’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단지 건물 짓고 직원 400명만 채용하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지는 우려감이 앞선다.

막상 충청도지역에서 학생 1000명이 수학여행을 왔다면 어디에서 재울 것인가? 경상도지역에서 일반인들이 500명이 문화체험을 왔다면 어디를 먼저 보여 줄 것인가? 강원도지역에서 친목회원 100명이 왔다면 무엇을 먹게 할 것인가? 일단 와서 전당 관람하고 나면 끝인가? 그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답해 줄 주체가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 광주시도 문

화관광부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 대답의 주체가 아니라고 한다.

대구는 2003년 설립된 국내 최초 단일 오페라 전용 극장인 오페라하우스가 있으며, 지금 ‘대구 국제오페라축제’가 열리고 있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미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다. 이런 시공(時空)하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것이고, ‘아시아문화수도’라는 명칭은 어느덧 사라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변형되었다. 많은 것을 중의 하나인 문화중심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적 코어의 형성만이 차별화 할 수 있는 동력이다. 전 세계 석학들이 원어로 강의하는 석·박사과정의 ‘아시아 문화 대학원’이 핵이 되어야 한다. 광주를 중심으로 세계를 향해 상호 교류하는 문화 전파자 양성이 소통의 혈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은 듣고 싶을 뿐이다. 서울의 1,2차 세미나와 광주에서 3차를 마친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열린 세미나’가 직원 400명 채용과 규모 및 조직 등 일반적인 자료 진열에 불과했다면 마지막 4차 세미나에서 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청춘특독·기고 환영합니다

청춘특독·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무등산 군부대 이전 언제까지 미룰 건가

무등산 정상부에 자리 잡은 공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이곳에 신행 무기 배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이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군부지 사용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25일 공군과 가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및 정상 개방 관련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군 측이 오는 2015년부터 무등산을 비롯한 전국에 주둔 중인 방공포대에 한 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 방어체계는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미사일로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2020년대 초 완료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무등산 군부대 이전은 사실상 물거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시가 군부대 사용 승인 권한을 쥐고 있지만 군사보호시설인 탓에 부대 측이 이전을 거부해도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장애급 부과밖에 없다고 한다. 시로서는 사용 연장 승인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공군은 지난 1966년부터 50여 년간 광주시에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배방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군부대는 무등산 정상 천왕봉 부근을 2m가량 깎아 방공포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립공원이자 광주의 어머니인 무등산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무등산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국립공원 내 대규모 군사시설이 점용되는 사례는 무등산이 유일하다.

그리고 차량 탐제가 가능한 새 미사일이 배치되는 마당에 공군부대가 무등산 정상에 위치할 필요는 더욱더 없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공군부대 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무등산의 주인은 지역민이다.

광주·전남 국비예산 확보 총력전 펼쳐야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윤인측 국회의 예산정국에 돌입하면서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법, 세월호 3법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어 이 지역 핵심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늘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11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정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되는 등 뼈대하게 일정이 진행된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핵심사업들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동태로 남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광주와 전남도가 내놓은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미래 먹거리 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

지 기반 조성, 3D콘텐츠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 전남도는 남해안 철도(보성~목포)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국립 단산립 치유단지 조성, 북해안연안터널 건설 등 미뤄서 는 안되는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달 3일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4일 새정치연합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갖는 등 적극적인 예산 투쟁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도 연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여·아를 뛰어넘어 접촉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사실 지방정부 입장에서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지역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예산 확보가 윤정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의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즐거거리가 많지 않던 어릴적, 그네 타기는 몇 안 되는 시골 어린이들의 놀이문화였다. 스릴을 즐기는 날렵한 어린이들은 누가 밧어주지 않더라도 가속도를 낼 줄 알았다. 시계 바늘처럼 그네가 서서히 속도를 높여 160도까지 치솟을 때는 아이들의 탄성이 쏟아졌다.

그네타기에는 ‘공진현상’이란 과학이 숨어있다. 공진현상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다른 물체(외부)의 진동수와 일치할 경우 진동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그

일치해 공진현상을 일으켰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서서히 움직이던 상판이 점차 상하 좌우로 움직임을 키우다 마치 파도가 치는 듯한 진동을 일으킨 후 울르르 무너져 내린다.

국내에선 2011년 7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39층짜리 테크노마트 건물 흔들림이 공진현상으로 화제가 됐다. 건물 20층 이상에서 상하로 흔들리는 현상이 느껴져 입주자 300여 명이 긴급대피했는데 분석 결과 12층 피트니스센터

공진현상

에서 실시한 태보(태권도·복싱·에어로빅을 합친 운동) 강습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0여 명의 회원이 동시에 발을 구르며 태보를 할 때 나오는 2.7Hz(1초에 2.7번의 진동)의 진동수가 테크노마트 건물 진동수와 맞아 떨어져 건물이 흔들렸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흔들림 사고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순신대교는 우리 기술로 지은 최초의 현수교이자 국내 최장 현수교다. 정확한 원인 규명만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교량역사를 새로 쓴 이순신대교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일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네를 뒤로 잡아 당겼다 놓았을 때 그네 혼자 왔다갔다 하는 주기가 바로 고유 진동수인데, 여기에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미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다. 이런 시공(時空)하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것이고, ‘아시아문화수도’라는 명칭은 어느덧 사라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변형되었다. 많은 것을 중의 하나인 문화중심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적 코어의 형성만이 차별화 할 수 있는 동력이다. 전 세계 석학들이 원어로 강의하는 석·박사과정의 ‘아시아 문화 대학원’이 핵이 되어야 한다. 광주를 중심으로 세계를 향해 상호 교류하는 문화 전파자 양성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마 케 팅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